

전북대 치대 개교 40주년 기념 화합과 우의 다저

교수·학생 등 연구성과 발표 등문 화합의 장 열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재학생과 동문 등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과 이민호 치과대학장을 비롯해 치대 교수 및 동문, 학생 등이 참석해 4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난 3월 개교 40주년 행사로 동문 종합학술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열었던 치과대학은 이날 '리서치데이 행사'를 통해 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창립 40주년 기념식

성과 발표를 통해 치의와 임상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평생 과학기술대학 치의대학원을

설립한 이병무 학장을 초청해 '북한 치과대학의 교육에 대한 이채로운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치대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치과대학 오원석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졸업 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1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또 행사 이후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어울리는 '홀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가을밤에 선후배간의 우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치과대학은 오는 10월 15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치과대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40주년 기념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한민구 원장 초청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특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최근 교내 창조관 합동강의실에서 한민구 한국과학기술원(KIST) 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한민구 원장님께 4차산업혁명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은 방송영상디자인과, 자동차로봇학과, 기계과 등 재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한민구 원장은 4차산업 혁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컴퓨터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최초로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백리스(bagless) 타입 진공 청소기를 개발한 영국의 가전제품 기업 다이슨을 소개하면서 IT와 디지털이 근간이 되는 지금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한 삶과 △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한민구 박사는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원장이자 평판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인 TFT(박막트랜지스터)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제38회 시가동민의 날 행사 성황리

정읍시 시가동주민센터는 지난 1일 시가동민의 날을 맞아 정읍 천변 일원에서 '시가동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동민의 날 화합 한마당은 주민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동 체육회(회장 임장훈)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도·시의원, 시가동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동민 한마음 걷기 대회와 색소폰·각설이·초대가수 등 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장수사과 사과 직거래 장터' 운영

전주대학교는 장수사과 농가와 상생을 위해 1일 학생회관에서 장수사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장수사과 농가 소식을 전해들은 전주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직거래 장터에서 사과를 구매했고, 하루만에 사과를 1,440개, 장수사과(5kg) 200여 박스를 완판했다.

전주대 관계자는 "사과의 판로 확보와 가격 하락에 고민하고 있는 장수사과 농가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

전북신협두순모아봉사단(단장 박찬재, 전주까나안 신탁 전무)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고창군 고창읍과 군산시 구암동에서 지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전통 한지벽지, 한지장판지를 활용해 저소득 빈곤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전국단위 사업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45가정을 지원한다. 이날 신탁 봉사단은 집안 내·외부 정리와 청소, 벽지 제거 및 벽지장판 도배를 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 /김윤성 기자

전북 바이애슬론 필승 다짐대회 열려

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북 바이애슬론 선수단이 최근 무주의 한 콘도에서 필승 다짐대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식은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러시아 전지훈련을 앞두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바이애슬론은 전북의 동계 효과 종목이자 전국 최강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며 10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전북 바이애슬론은 연맹과 지도자, 선수들의 열정이 넘다며 초·중·고 및 일반부로 연결되는 선수 육성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바이애슬론연맹 황인홍 회장(무주군수)은 "바이애슬론은 전북의 자랑이다"며 "최선을 다해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590-910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호우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388-8874	남원지사 632-3388	고창지사 523-6999
삼천지사 010-2333-40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완성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94
홍주지사 010-9645-933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9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석종건 보병 제35사단장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1일 국군의 날 71주년을 맞이해 석종건 보병 제35사단장 및 참모진과 함께 기념 참배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군의 날 71주년을 기념하며 현충탑 참배를 갖고 호국 강군의 건설에 앞장섬은 물론 지역 방위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국군을 약속했다.	
석종건 35사단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호원대, 군산사랑 대행진 봉사활동 나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제44대 총학생회(회장 박세민)는 101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나흘간 군산 구불길 코스 일대를 걸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군산사랑 대행진'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여프로그램으로 3박 4일간 총 101Km의 구불길 코스를 걸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이다.

첫날에는 선유도해수욕장 환경보호 캠페인과 새만금방조제둑길 정화활동을 진행했고, 둘째 날에는 은파호수공원 정화활동과 근대역사박물관 무대에서 K-Pop 학과와 동아리 공연을 펼쳤다. 셋째 날에는 금강호 휴게소와 금강노인복지관 주변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보석 노인회관을 거쳐 호원대학교로 도착하는 일정이다.

박세민 총학생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호원대 학생들이 군산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새만금의 넓은 바다를 통해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군산의 아름다운 구불길을 걸으며 지역사회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과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남은 일정 모두 무사히 잘 마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